

선원들, 망망대해에서도 LTE급 인터넷 사용한다

-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

해양수산부는 노·사·정이 공동 운영하는 '선원기금'을 통해 원웹, 스타링크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2월 5일(목) 부산 해양수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박은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선원들이 사진 전송, 동영상 시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사와 2023년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의 조속한 도입에 합의한 후, 과학기술통신부에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단말기 적합성 평가 등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지속 건의하는 등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준비를 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 기술기준 마련과 해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경 간 공급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기존보다 50배 이상 빠른 육상의 LTE급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념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승우 선원기금재단 이사장, 해운협회 및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노·사·정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선원기금재단에서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을 위해 협조해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우수한 해기사 양성을 위한 오션폴리텍 학생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지원사업은 국제필수선박*과 국제지정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선원기금을 통해 2월부터 척당 매월 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사는 선원기금재단에 신청하면 되며,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선원기금재단 누리집의 공지사항(www.kseafarer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에 꼭 필요한 물자 등을 운송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선박

** 한국인 선원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선박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선내 초고속 인터넷 도입을 통해 장기간 선박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의 고립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선원이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민이 저궤도 위성통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선원들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진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51-773-5740)
		담당자	사무관	이은재 (051-773-57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책임자	과 장	최광기 (044-202-4930)
		담당자	사무관	노인영 (044-202-4935)

□ 선내 저궤도 위성 인터넷 도입 추진 현황

- ‘스타링크’, ‘원웹’ 등 저궤도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선박용 인터넷의 국내서비스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상 절차 심사

* 기존 선박용 인터넷 대비 약 50배 빠른 다운로드 속도 제공 중

-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분배표 개정('25.2.), 기술기준 마련('25.4.) 및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25.5.) 완료
- 해양수산부와 노·사는 ‘선원기금’을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를 개시하면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여 예산 반영(28.8억원)

* '26년 국가필수선박 및 국제지정선박 300척 지원

□ 위성통신 궤도별 비교

구분	정지궤도	저궤도
궤도	적도상공 36,000km	고도 300 ~ 1,500km
공전주기	위성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주기 동일	지구 주위를 하루에 11 ~ 15회 공전
장점	<u>넓은 커버리지</u> , <u>특정 지역 24시간 커버</u>	<u>높은 전송 속도</u> , 저비용으로 제작·발사
단점	<u>낮은 전송 속도</u> 제작·발사에 고비용 소요	<u>좁은 커버리지</u> , 다수 위성 필요

□ 도입예상효과

- ‘스타링크’, ‘원웹’ 등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선내 보급을 통해 원활한 사진·동영상 전송과 시청을 통해 선원 고립감 해소 기여 기대

As-Is (기존)	To-Be (향후)
• 사진·동영상 전송과 영상통화·동영상 시청 시 끊김 및 지연	• 해상에서도 LTE급 이상 통신품질 유지(끊김, 지연 상당히 완화)